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한 진로 및 전환 관련 연구 동향

박경옥, 김재현, 박정민, 홍서린(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법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하고 최근 평생교육 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적 지원이 요구 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전환관련 연구 동향에 관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아 그동안의 중도·중복장애학생 전환의 발달과 연구 흐름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수와 요구에 따라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 내용을 대상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전환과 관련된 연구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분석, 요구되며 향후 지원 방향 분석해 봄으로써 이를 통해 현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국내 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며 이 분야에서의 향후 연구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중도·중복장애인 전환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논문을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로 “중도장애”, “중증장애”, “중도·중복” 하며 하위 검색어로 “전환”, “진로”, “직업”, “고용”, “자립”, “독립”,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과 국회도서관을 통해 논문을 검색하고 검색된 논문이 발간된 학술지를 확인 후 관련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그 결과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총 256편의 논문들 중 검색어가 포함된 24편의 논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표된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전체 24편의 연구논문 모두 2000년 이후에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활발히 발표되었던 기간은 2015년이며 전체의 12.5%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전환 관련 연구를 4년 단위로 주제별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연구주제에서는 직업진로가 6편(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용이 4편(16.7%), 그 후로는 독립 3편(12.5%), 자립 3편(12.5%), 전환 3편(12.5%), 고등·평생교육 3편(12.5%)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는 2014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연구유형에서 실태조사가 13편(54.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향후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전환에 관련한 심도 깊은 연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위한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로는 국외의 사례분석, 모형연구 등이 있다.

연구대상에서 생애주기 별로는 학령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20.8%)으로 가장 많았으

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12.5%) 나타났다. 응답대상자 별로는 교사가 6편(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 영역에서는 학교(20%)가 기관보다 많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기타프로그램이 7편(29.2%)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그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편(23.5%)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증가하였고 학교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반면 대학, 졸업 후 훈련생, 구직자, 동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또한 미비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유형 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의 유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유형을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문헌연구 10편(41.7%), 조사연구 9편(37.5%), 질적연구 2편(8.3%), 실험연구 1편(4.2%)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헌연구가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 사용빈도는 가장 낮았다. 기간별로 문헌연구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조사연구는 꾸준히 나타났으며 질적연구는 최근 많이 진행되었다.

통계방법은 기술통계, 상관분석, χ^2 , t검증 등의 기초통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10편(4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중급통계인 중다회귀분석, 고급통계인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논문이 각각 한편씩 연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통계는 2001년 이후 꾸준히 나타났으며 2009년에서 2012년에 발표된 논문 중 7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2009년에서 2012년에 중급, 고급통계 등 다양한 통계분석이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전환 관련 연구동향 관련 연구 24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면에서 4년 단위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24편의 대상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편수 부족하였고 단순한 설문조사에 그치는 기초연구만 진행되었다. 또한 당사자 관찰이나 중재에 의한 연구가 아닌 주변인들의 평가 등 간접적인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장애인들의 요구나 필요 및 지원에 대한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된 연구도 국외의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문헌 연구가 다수였으며 국내에 적용·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관찰과 당사자 요구에 대한 질적·양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일회성 단편연구가 아닌 생애주기별 지원이나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 종단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및 개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학령기 범위 중증장애인에게도 연계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등교육 이후 성인기 삶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적절한 요구 프로그램, 지원인력 및 센터, 인력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체 장애학생의 전환에 대한 연구 중 중증·중복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국한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장애학생의 전환 연구경향으로 일반화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전체 장애학생의 전환연구 동향과 다른 특정 장애영역에 대한 연구동향을 동시에 분석하여 전체와 비교 가능한 특정 장애영역의 연구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각면의 심층적인 중

도·중복장애학생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